가족 최우수상

바나나야 천천히 와도 괜찮아

김태리 가족





#1 태리태오 가족의 독후활동 여정

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와 연결을 찾아간 가족의 독서 여정
"바나나야, 천천히 와도 돼."
기다림 속에 담긴 마음을 배우고, 함께 읽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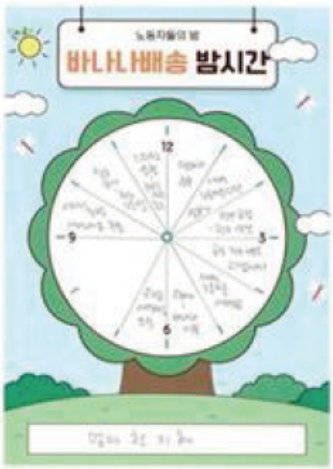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서 우리 가족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책 속의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진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나나가 자라기까지의 수고를 생각했고, 우리는 식탁 위의 한 조각이 누군가의 하루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그린 그림을 벽에 걸었고, 바나나 껍질로 염색한 천 위에 각자의 손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나나 한 송이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전시를 열었고, 이웃과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 가족이 함께 자란 시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권의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경험은 예상보다 훨씬 특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바나나가 도착하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연결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바라보며, 나 역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

아이들은 책 속 인물과 자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며, "우리도 밤에 시장에 가서 도울 수 있나요?" 같은 엉뚱하지만 순수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그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키워갈 수 있었다. 이 독후활동은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







활동사진








가족 우수상

2025 민성 민정 민주네 문집

조지만 가족











#1 "올해도 우리 가족 연중행사, 책 읽는 동구 독서공모전!"

올해로 몇 번째 참여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책 읽는 동구 독서공모전'은 이제 민성·민정·민주네의 여름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막내 쌍둥이들도 이름을 올려,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오빠 민성이가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동생 민정이·민주가 각각 책을 읽고 직접 독후활동을 기록하며
'가족 문집의 공동 저자'로 당당히 자리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지난 문집들을 펼쳐보니, 아이들이 해마다 성장해 가는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문집이 우리 가족에게는 시간의 앨범이자 추억의 책장입니다.

**"책을 통해 가족이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는 걸 느꼈어요.
매년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2 함께 읽은 올해의 책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 이야기
『숲속 재봉사의 옷장』 — 나눔과 정성의 가치를 배운 동화
『들개왕』 — 용기와 선택의 의미를 함께 토론한 작품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 아이들의 일상과 고민을 함께 이야기한 책

#3 책을 통해 기다림과 사랑을 배우는 시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문집은 우리 가족의 성장 일기입니다.
책 속에서 배우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이렇게 읽어보세요!!

독후감은 이렇게 : 각자 느낌을 나누고, 한 줄씩 이어 써 보기
이야기를 싣는 만화가 : 인상 깊은 장면을 가족이 함께 만화로 표현
책 광고 만들기 : 직접 홍보 문구를 만들고 포스터로 제작
삼행시로 표현하기 : 주제어(바나나, 숲, 들개, 어린이)로 삼행시 짓기
엄마의 단상 : 엄마가 쓴 감상문, 가족 활동의 마무리로 수록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투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잘못된 표현이야.
마음의 상처가 되니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 해.



장애인이 뭔가를 극복해야 한다면 그건 장애인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을 만든 사회의 잘못임을 알아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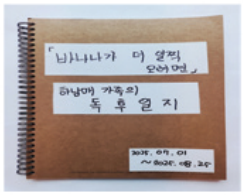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가족 우수상

하남매 가족의 특별한 여름

이선희 가족





#1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마음을 나누다

월봉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남매와 부모가 함께 한 하남매 가족은 올해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공모전에 네 번째 참여했습니다.
매년 책을 통해 한 해의 시대상을 배우고, 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온 이 가족에게 '독서공모전'은 연례행사이자 성장의 기록장입니다.
올해는 정진호 작가의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을 선택해 두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깊이 읽으며 기록하고, 체험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림책 한 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점차 현실 속 행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 하남매 가족의 독서 활동과 기록

- **7~8월 두 달간 매일 한 페이지 독후일지 기록**
  → 처음에는 단순한 감상이었지만, 한 달 뒤에는 새로운 관점과 토론이 이어짐
- **책 속 주제 재탐색**
  → '편리함 뒤의 노동', '기다림의 가치' 등 가족 토론 주제로 발전
- **가족 공동 일기 작성**
  → 같은 책을 반복해 읽으며 변화하는 생각을 함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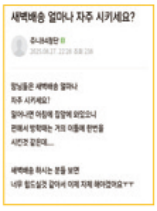
#3 '독서'에서 '행동'으로-하남매 가족의 실천

"바나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많은 손길을, 이제는 책이 아닌 삶에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 **아이들 마트와 시장을 돌며 직접 바나나와 식재료를 구입하기**
  "우리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쉼이 되길"이라는 마음으로 실천했습니다.
  → 편리함 대신 손의 노동을 선택한 경험
  - 하남매 엄마의 월봉초등학교 아침 돌봄 봉사활동
  - 아빠의 새벽 바다 조업 체험







#4 하남매 독서확장 활동 & 새벽 배송 주문사례 토론

- **학교와 지역사회 속 확장 독서**
  - 월봉초등학교 학부모 독서회와 아이들의 교실 독서토론
-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을 함께 읽으며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 이야기 나눔**
  "내가 새벽배송 기사라면?"을 주제로 친구들과 토의하며 노동의 존엄에 공감
  - 실제 주문기록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며 "편리함 뒤의 새벽노동"을 시각적으로 체험이후 가족은 택배 주문을 절반 이상 줄이기 실천







#5 하남매 독서확장 활동 & 새벽 배송 주문사례 토론

가족이 용돈을 모아 간식과 손편지를 담은 감사박스를 제작해 담당 기사님께 직접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기사님의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남매 가족은 매일 문 앞에 기사님 간식 박스'를 준비합니다.

#6 참여소감

"책 한 권이 가족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누리던 편리함이 누군가의 새벽을 대신하지 않도록,
이제는 '기다림을 선택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가족 장려상

읽는 가족 매일 독서의 힘

김나영 가족

#1 '좋은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 가족의 책 여정

3년째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독서공모전에 참여하며, 가족의 일상에 함께 읽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결혼 전부터 책을 가까이해온 부부는 세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성장하고, 구립도서관 '책정원'을 중심으로 꾸준한 독서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2 최향랑 작가의 「숲 속 재봉사」 시리즈와 창의적 독후활동

숲속 재봉사 시리즈 책을 모두 읽은 뒤, 아이들과 함께 꽃과 그림을 이용해 직접 작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첫째는 숲속 동물들에게 어울릴 옷장을 직접 디자인하고, 둘째는 바다 속 생물에게 옷을 입혀주는 '바닷속 재봉사' 그림을 완성해 자연물과 꽃잎으로 만든 배경을 함께 꾸며, '손으로 만드는 책 속 세계'를 경험했다.
꽃잎으로 만든 옷이 신기했던 7세 둘째는 자꾸 그림을 손으로 만져보며 즐거워했다. 첫째에게는 바느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그림책이라고 알려주니, 작가의 세계가 놀랍고 인상적이라는 말을 하였다.







#3 가족 독서토론

올해의 책 5권을 함께 고르고 가족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눠 첫째 딸의 선택으로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을 읽기로 했다.
책을 읽는 동안, 새벽 배송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지에 대해 가족 모두가 찬반 토론을 벌이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가족의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았다. 또한 남편과 나는 [어떤 어른]을 읽으며, 아이를 대하는 따뜻한 시선과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4 공모전 참여소감

가족 모두 책을 가까이하며 도서관을 찾는 것이 일상이 된 것에 큰 감사와 기쁨을 느낀다. 이번 주에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챌린지에 두 아이가 참여하여, 첫째는 고전 30권을 포함해 100일 동안 100권 읽기에 도전하고, 둘째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리 내어 100권 읽기를 약속하였다. 이 작은 도전들이 쌓여 우리 가족의 하루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도서관과 책을 중심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싶다

가족 장려상

너랑 나랑 함께 만드는 둥근 세상

손자영 가족

#1 노동으로 이어지는 둥근 세상 바라보기

정진호 작가의 『바나나가 일찍 오려면』은 한 송이 바나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우리 가족은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노동'이란 무엇이며, '일하는 사람'이란 누구인가를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 우리 큰 아이는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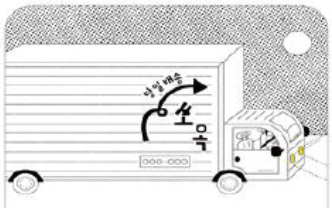
그래서 이 책을 꼭 같이 읽고 싶었어요. 가족 독서의 원칙은 '모두 참여하기'
늘 늦게 퇴근하던 아빠가 낭독을 맡았고, 엄마와 아이들은 그림을 보며 생각을 나누었다.
그림책을 다 읽기도 전에 아이들은 "우와, 이야기가 연결된다!"며 흥미를 보였고,
책 속 장면을 카드로 출력해 '둥근 구조'로 다시 배열하며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다.
택배기사, 주유소 직원, 전철 운전자…다 바나나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림을 동그랗게 나열하자 "이게 진짜 '둥근 세상'이구나!" 하는
아이들의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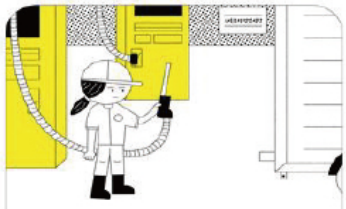




#3 함께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자란 마음

책을 읽은 뒤, 가족은 '노동'과 '사회'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는 쿠팡 노동자 과로사, SPC 사고 기사 등을 함께 읽으며 물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해야 할까?"
아이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일하다 죽는 건 너무 슬퍼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서 다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4 책을 읽고 난 뒤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의 거실은 '이야기방'이 되었다. 뉴스를 함께 보고, 사회 이슈를 이야기하며 "저건 왜 그런 걸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늘었다.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하는 노동자들을 보고 중학생 큰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있어요?" 그 한 마디가 가족의 대화로 이어졌다.
노동, 임금, 안전, 연대의 의미를 함께 이야기하며 책 속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졌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따뜻한 연결의 시간을 통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둥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가족 장려상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어

이은주 가족

#1 올해의 책 가족과 함께 읽기

산수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아이들은 이미 다 읽어버렸다. 표지가 "나를 읽어줘."라고 말을 걸었다고 했다. 다시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자, 아이들은 줄줄이 내용을 외우듯 되짚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구조를 흥미롭게 느낀 듯했다.

① 함께 읽기 → ② 노래로 바꾸기 → ③ 다큐 3일 '새벽 배송' 보기 → ④ 앞부분 상상해서 그리기 → ⑤ 주제 확장 독서 → ⑥ 소감 정리

#2 노래로 바꾸기

책의 내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니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이 리듬에 가사를 바꿔봤는데 도통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서 떠올린 노래는 바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다행히 이건 가능했다.

#3 다큐3일 <새벽배송> 보기



늦은 저녁시간, 물류창고에서 포장, 검수를 거쳐 새벽배송을 통해 우리가 물건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었다.

<시청하며 나눈 이야기>
*우리가 엄청 쉽게 사는 게 이렇게 복잡해?
*엄마, 많이 사면 안 되겠네.
*우리가 배달 받는 데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네!
*우유도 이렇게 오는 거였어?

#4 확장된 생각과 성찰- 앞 부분 상상해서 그림 그리기

바나나가 열대지방의 어느 나라에서 키워져 수입되기까지의 과정과 수입된 후 물류센터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상해서 그려 보았다
"우리 식탁 위의 한 송이 바나나에도 수많은 손이 닿아있어요"



바나나 키우기
(농부)



바나나 우리나라로 가져오기
(조종사)



공항에서 물류센터로 옮기기
(트럭 운전사)



바나나 포장하기
(물류센터 직원)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고정순 글·그림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
박보영 글 / 쉬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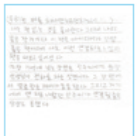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브라이언 플로카 글·그림

#5 주제 확장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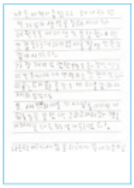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노동'을 주제로 한 책들을 함께 읽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소방관 아저씨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구나."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코로나 때 우리가 편할 수 있었던 건 이런 분들 덕분이었어요."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 "청소도, 배송도 다 누군가를 편하게 하는 일이네."
세 권 모두 '누군가의 노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보여주었다.

#6 소감 정리

아이들은 택배가 없던 시절을 모른다. 하지만 나 또한 '로켓배송'에 익숙해졌다.
다큐를 보고, 밤새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럼 택배를 안 시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멈칫했다.
이 책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삶이 나의 편안함을 만든다."



초3 첫 째



초1 둘 째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최우수상

독독독(讀) 생각키움! 꿈키움!

조선대부속중학교 지도교사: 윤정희

#1 올해의 책과 함께한 순간

즐거운 책 문화 확산을 위한 올해의 책 함께 독서에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동참
· 1학년 126명 쉬프팅(범유진), 너를 위한 B컷(이금이)
· 3학년 28명 꿈을 걷는 소녀(백혜영), 쉬프팅(범유진), 너를 위한 B컷(이금이)
· 학부모 독서회(그루터기) 12명 전문적 학습공동체 모임(3팀) 13명










#2 책으로 시작된 대화, 마음으로 이어진 공감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배움은 더 깊어지고,
독서는 삶 속 실천이 되었습니다.





조대부중 책소개 영상 공모전
북트레일러 학생 작품
(영상, 숏컷)

#3 온라인에서 이어진 생각의 나눔

함께 읽고 느낀 점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생각을 모으고, 친구들과 마음을 잇는 토론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Q1. 편집된 B컷의 '진실'이 중요할까, 현실 속 A컷의 '아름다움'이 중요할까?
Q2. 미래사회에 학교는 필요한가?(찬성/반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우수상

좋은 책과 함께 꿈을 키우는 우리들

신창초등학교 2학년 3반 지도교사: 김은하

#1 올해의 책과 함께한 독후활동

1) 구성원 : 2-3반 학생들
2) 주제도서 :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들개왕』,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숲속 재봉사의 옷장』
3) 주요활동
- 학기 초부터 매달 추천 도서를 함께 읽으며 책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
- 도서와 연계한 생활 속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즐겁게 이야기 나누기, 체험 중심 활동, 만들기 등을 병행(생활 속 실천 약속 만들기, 생각 카드 작성, 그림 일기 등)







#2 생각의 나눔과 확장 활동

가. 환경교육(1학년)
·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 중 환경보호 주제 중심 수업 진행.
· 지구 사랑 가방 만들기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의미를 쉽고 즐겁게 배움



나. 노키즈존 토론(5학년 연계)
· 책을 매개로 어린이의 권리와 공공장소 예절, 배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나눔.



다. 여름방학 독서동아리 활동
· 1~2학년 희망 학생 중심 독서동아리 구성.
· 『들개왕』, 『바나나가 더 일찍 오려면』, 『숲속 재봉사의 옷장』을 읽으며 활동.
· 7월 활동 주제와 연계하여 인권·환경·공존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마련



라. 가정으로의 확장활동 "꼬마 선생님 프로젝트"
학생들이 동생(4~7세)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함께 하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눔

#3 지도교사 참여후기

'좋은 책과 함께 꿈을 키우는 우리들'은 학급 특색활동으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1~2학년 수준에 맞춰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였고, 활동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번 책을 다시 읽으며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독서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책 속 이야기를 자신의 생활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책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광역시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우수상

B컷에 관심을

대성여자중학교 2학년 1반 지도교사: 임경진

#1 학생이 주도한 아침독서, 올해의 책을 통한 공감과 성찰

도서명: 『너를 위한 B컷』 활동구성 : 담임교사와 학급 학생 26명

- 아침독서 및 독서기록장 작성 -



▲ 함께 독서하기



▲ 독서기록장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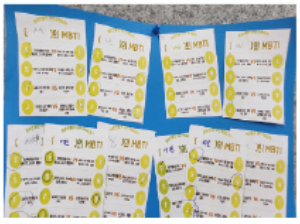
아침 독서 활동은 4명의 학생 모둠장이 계획하고 주도 26명의 학급 학생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너를 위한 B컷>은 또래 청소년 이야기를 다루며, 친구들 간의 관계와 소통,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책 속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며 공감과 이해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책과 친구, 그리고 나를 연결하는 시간

우리 반 MBTI 탐구 활동



▲ 나와 친구의 MBTI 생각해보기



▲ 책 속 등장인물 MBT 추측

#3 책 속 한 문장, 마음에 담다



▲ 책 속 구절로 책갈피 만들기



▲ 나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4 인물의 마음을 소품에 담다



▲ 나와 친구의 MBTI 생각해보기



▲ 책 속 등장인물 MBT 추측

#5 함께 나누는 마음 깊어지는 생각

우리 반 학생 전원이 함께 모여, 각자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인상 깊은 구절, 그리고 자신과 연결 지어 생각한 부분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큰 공감으로 이어졌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6 함께 읽고, 함께 성장한 우리

같은 책을 읽어도 각자의 시선과 해석은 모두 다르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독후활동 결과물을 학급 뒤편에 전시하며, 서로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다. 또한 자신의 작품이 공개된다는 점은 책임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동기가 되었고,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보며 새로운 배움을 얻는 계기도 되었다. 이처럼 '읽고 끝나는 독서'가 아닌,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로 이어지는 우리 반의 작은 전시 공간은 지식과 감성이 함께 흐르는 하나의 배움의 장(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단체 우수상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선창초등학교 잎싹독서회

#1 잎싹독서회 X『어떤 어른』





'잎싹'은 새싹처럼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뜻합니다. 저희 독서회는 매달 1·2학년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진행하며, 독서토론·필사·시 낭송·문학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어떤 어른』을 함께 읽으며 '어른다움'이란 무엇일까를 두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2 독후활동 :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1부> 아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떤 어른인가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앉아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이의 눈엔 어떤 어른으로 보일까?" 짧은 대화 속에서 웃음도, 반성도, 따뜻한 다짐도 오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마음속 '나의 어른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믿음이 되는 어른입니다."

<2부> 열일곱 살의 나는 어른으로 가고 있나요?
『열일곱 살이면』을 바탕으로 "열일곱 살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
→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전하는 위로와 다짐
"그때의 나야, 괜찮아. 천천히 커도 돼."
→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3부>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어른의 어른'에 등장한 진짜 어른들처럼, 우리도 주변의 '닮고 싶은 어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성장에 힘이 되는 어른이 될래요."
▶강한 어른 ▶예쁘고 유쾌한 어른 ▶책 읽어주는 어른 ▶좋은 어른 ▶착하고 성실하고 순한 어른 ▶착한 어른 ▶배려심 많고 양심 있는 어른





#3 마음에 남은 한 문장

"어른이란,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사람."
이 한 문장이 잎싹독서회의 독후활동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책 한 권이 우리를 이어주고,
이야기 한 줄이 우리를 자라게 했습니다.

잎싹독서회는 책을 매개로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좋은 어른이 되는 길'을 서로에게서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장려상

책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연결되는 Sale·人·동구

살레시오여자중학교 지도교사: 정용훈

#1 책 읽는 동구, 교실로 찾아오다

살레시오여중 1학년 학생들이 '책 읽는 동구'의 취지에 공감해 한여름 교실을 작은 독서공동체로 바꾸었습니다.
교실마다 다른 책이 배부되고, 자유학기제의 여유 속에서 책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난 7월 색동회 강사님과 함께한 '찾아가는 독서교실'은 읽기, 나누기, 그리고 표현하기로 이어지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 독서 활동 강의(1-1)


▲ 독서 활동 강의(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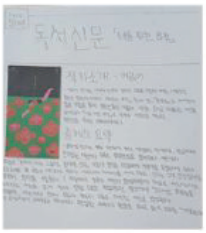

▲ 독서 활동 강의(1-3)


▲ 새표지 만들기(쉬프팅)



▲ 새표지 만들기(너를 위한 B컷)


▲ 새표지 만들기(꿈을 걷는 소녀)



▲ 독서 신문 만들기

#2 독서활동으로 배우는 '함께 자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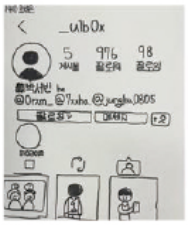
학생들이 읽은 내용을 패들렛(Padlet)에 실시간 공유하고 친구의 감상을 댓글로 응원하는 모습은 '온라인 속 독서 동아리' 같았습니다.


▲ 정리 활동(4컷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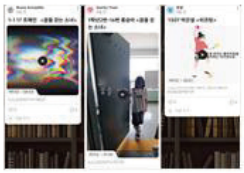

▲ 정리 활동(새 표지 디자인)


▲ 정리 활동(독서신문 제작)

마지막 주에는 복도와 계단이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새 표지 디자인, 4컷 만화, 독서신문, SNS 계정, 독서 예고편 영상까지 책이 학생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 SNS계정 만들기


▲ 바로가기
▲ 독서 예고편 만들기


▲ 바로가기
▲ 독서 에세이 쓰기


▲ 복도 전시(행잉 액자)


▲ 복도 전시(게시판)

#3 Sale·人이 전하는 독서의 순간들

"『쉬프팅』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두 주인공의 평행세계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1303 김O영

"처음엔 표지만 보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꿈을 걷는 소녀』는 현실 고민과 닮아 있어서 마치 내 이야기 같았어요."

1206 선O율

"『너를 위한 B컷』을 읽고, 완벽하지 않은 나도 괜찮다고 느꼈어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B컷'이 되어줄래요."

1402 김O우

▲ 독서 교실(종합)
▲ 활동 결과물
▲ 독서 교실 후기 모음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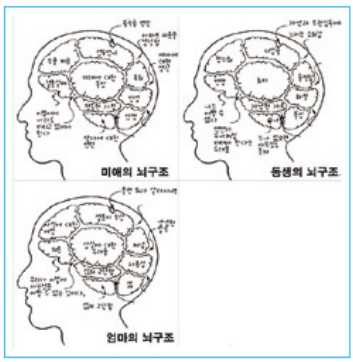
축복을 비는 마음

한강의 기적

#1 함께 읽는 우리, 인물의 마음을 탐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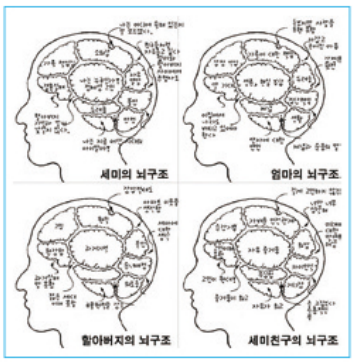
"등장인물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강의 기적 독서동아리는 김혜진 작가의 『축복을 비는 마음』을 함께 읽고, 각 단편 속 인물의 감정, 관계, 성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한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물의 뇌구조와 MBTI, 타임라인'을 직접 분석하며 소설 속 마음의 움직임을 시각화했습니다.

#2 인물 속 '나'를 찾아가는 2차 창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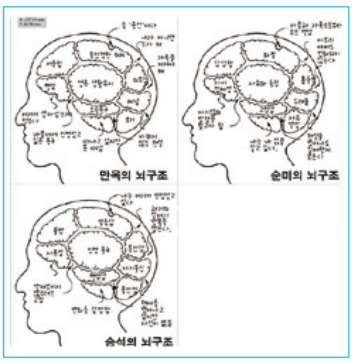
『미애』
가족을 지키려 애쓰는 현실적 보호자, 그러나 불안한 마음의 주인공
MBTI: ISFJ - 책임감 있고 다정하지만, 상처를 혼자 감당하는 타입

"삶의 무게 속에서도 나를 지탱하는 건 결국 '관계'였다."



『20세기 아이』
말을 잃은 시대, 다시 말을 건네는 소녀의 이야기
MBTI: INFJ - 사색적이고 예민한 성찰형 아이

"말을 잃은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은
곧 나의 이야기였다."



『목화맨션』
같은 건물, 다른 세상 - 관계의 거리감을 말하다
MBTI: 만옥(ISTJ) :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어른
순미(ISFJ) : 관계를 지키고 싶은 어른

"같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는 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3 회원별 독서후기와 소감나눔

「미애」를 읽고
삶의 무게와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버티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희망이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힘'임을 깨달았다.
독자는 미애의 절망과 분노를 통해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품었다.

「20세기 아이」를 읽고
스무 살의 독자는 세미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
가족과 사회의 틀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세미의 모습은 지금의 청년 세대의 초상이었다.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려는 용기가 이 작품의 진짜 메시지였다.

「목화맨션」을 읽고
집주인 만옥과 세입자 순미의 관계는 현대 사회의 관계와 책임의 무게를 비춘다.
경제적 현실, 빚, 정과 갈등이 얽힌 이야기 속에서 독자는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관계의 진실"을 공감했다.
현실적인 주거문제와 인간의 외로움을 동시에 품은 이야기였다.

「축복을 비는 마음」을 읽고
인선과 경옥, 두 인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삶을 버텨낸다.
인선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고통", 경옥은 "현실을 버티기 위한 냉정함을 상징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다
"선함만으로는 세상을 버틸 수 없지만, 냉정함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의 온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단체 장려상

요즘 어린이도 당당히 말한다 독서 프로젝트

서일초등학교 3학년 2반 지도교사: 진윤경

#1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국어 교과 '독서 단원'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직접 고르고,
그 책으로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독서공모전 참여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이유"를 좀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이 흥미롭게 다가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요즘 어린이'로서의 권리와 목소리를 배우고,
글과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 속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차 시	주 제	주요활동
1	책과 만나기	· 표지와 목차로 내용 예상 · 나에게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발표하기(띵커벨 사용)
2	어린이(학생)다움은 무엇일까?	· '학생이니까 공부나 해!' 읽고 토론, 나다운 어린이 모습 이야기
3 - 4	노키즈존 vs 예스키즈존	· 차별 경험 나누기, 행복한 공간 포스터 만들기
5 - 6	고정관념과 편견 멈춰!	· 편견의 말을 존중의 말로 바꾸는 역할극
7 - 8	이렇게 말해줘!	· '요리 초보자는 요린이'를 읽기 ○린이' 대신 쓸 새 표현 제안하기
9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 어린이 권리 알아보기, 우리 반 권리 선언문 작성
10	책과 나의 삶 돌아보기	· 인상 깊은 문장 나누기 · '요즘 ○○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글쓰기 · 친구들의 글을 읽고 공감의 댓글 달기

#2 어린이의 목소리로 세상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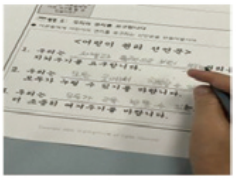
"책 속에서 배운 존중과 용기는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서일초등학교 3학년 2반 아이들은 책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배우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작은 시민'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멘티미터를 활용한 목차 살펴보기



▲ 띵커벨을 활용하여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 나누기



▲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다운 모습 표현하기



▲ 내가 생각하는 어린이다운 모습 발표하기



▲ 어린이가 행복한 공간 포스터 만들기



▲ 어린이가 행복한 공간 포스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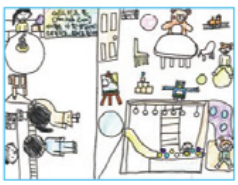
▲ 존중을 담은 역할극 표현하기



▲ 존중을 담은 역할극 표현하기



▲ 학급 어린이 권리 선언문 작성하기



▲ 책과 나의 삶 돌아보기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단체 장려상

어떤 어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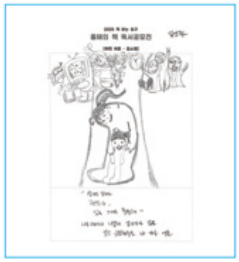
독독한 사람들

#1 생각을 나눈 독서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독독한 사람들 동아리는 『어떤 어른』을 함께 읽으며, 각자 마음속 '진짜 어른다움'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2 함께 그린 '어른의 얼굴'

책 속에서 만난 '어른'의 의미를 각자의 시선으로 표현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무의 손'을, 누군가는 '시간을 건너는 친구'를,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품는 어른의 손'을 그렸습니다.
서로 다른 그림이지만, 모두 같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함께 자라나는 사람."




#3 생각의 나눔

김정연
우리동네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무려 '노 청소년존'이다.
미성숙한 공공예절을 이유로 들지만, 정작 가장 무례한 장면들은 어른들의 몫이었다.
무분별한 노키즈존과 노학생존은 미성숙함이 아닌, 어른들의 편견을 비추는 거울이다.
아이들은 오히려 배운 규칙을 조심스럽게 지키며 사회를 배운다.
『어떤 어른』 속, 차별금지법 지지 집회의 초라한 풍경은 정의가 언제나 힘을 갖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를 '분란'이라고 말하지만, 그 불편한 외침이 사회를 성장시킨다.
진짜 어른다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
나는 매일 아이들에게서 배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될 용기를 가질 것인가?"

임연화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충분해"
나로 태어나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믿고 응원해주는 '나' 이자 '어른'

신해인
"시간 너머의 친구"
이 그림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같은 나이의 모습으로 나란히 선 엄마와 딸을 그렸다.
왼쪽의 인물은 1990년 20살의 엄마, 오른쪽의 인물을 2020년대를 살아가는 20살의 딸.
이 둘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사이지만, 이 그림속에서만큼은 친구처럼 팔짱을 끼고 함께 웃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어떤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다.

전현수
아기 손 모양의 나무는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어른 손 모양의 나무 뿌리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 덕분에 큰 태풍이나 바람 같은 어려움도 견뎌내면서 점점 더 튼튼하게 자라나죠.
이 그림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리며 희망과 인내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최아연
어떤 어른 : 어린이를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
배경에 '보호'라는 의미를 담은 노간주나무를 그리고, 또 어른의 손으로 어린아이를 선물포장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른은 어린아이를 아끼고, 선물을 포장할 때처럼 아이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은 그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광주 동구

단체 장려상

요즘 어린이의 요즘 생각

광주남초등학교 3학년 3반(K남 북 헌터스) 지도교사: 이민혜

#1 함께 읽는 올해의 책

우리는 광주남초 3학년 3반, '삼삼반 어린이들'이에요.
아침마다 책을 읽고, 책 속 낱말로 퀴즈를 만들어 푸는 걸 좋아해요.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것』을 함께 읽으며
'요즘 어린이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를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2 우리 반 독서활동 이야기

캔바로 독후화 그리기
"책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니 내가 느낀 감정이 더 깊어졌어요."
친구들은 캔바를 이용해 '요즘 어린이의 마음'을 색과 선으로 표현했습니다.













→ "서로 다름을 존중해요.", "어린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독서퀴즈 & 토의
"우리가 직접 만든 퀴즈를 친구들이 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삼삼반은 독서퀴즈로 책 내용을 복습하고, 띵커벨로 '요즘 어린이다운 모습'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우리의 약속 게시판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서로 놀릴 때 멈추기"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전하기"
삼삼반 친구들은 책을 통해 '존중'을 배우고, 스스로 실천 약속을 만들어 교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2025 인문도시 광주동구
함께 읽는 우리

서로 다른 두 사람, 같은 바다 위의 이야기

버핏의 시간

단체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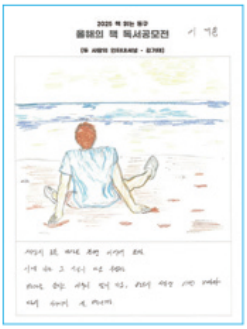
#1 마음에 남은 문장, 우리가 함께 고른 한 줄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 관계의 거리, 마음의 온도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거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마음의 간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 두 인물이 겪는 감정의 파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닿아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을 함께 읽은 버핏의 시간 회원들은 관계 속의 외로움·연결·이해라는 주제를 각자의 언어로 되새기며 그림과 글로 자신만의 '두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위유진「무겁고 높은」
"자유는 무게를 감당한 자에게 오는 선물"

허벅지와 어깨에서 뚜렷해지는 근육들.
바벨에 수없이 긁혀 흉터가 생긴 정강이나 무게에 눌려
멍든 쇄골도 어쩐지 싫지 않았다.
송희는 들어보고 싶다기보다 버려보고 싶었다.
버렸을 때 온몸의 무게가 일시에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무겁고 높은 것'을 든 자의 자유이지 않을까?
딱딱하고 차갑지만, 내 손 안의 내 몫의 약속.

이재용
"도망쳐도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

세상의 모든 바다는 분명 이어져있다.
이제 나는 그 사실이 다소 무섭다.
바다를 등지고 아무리 멀리 가도,
반드시 세상 어떤 바다와 다시 마주치게 될 테니까.

국무영「어두운 시간대임, 전조등」
"어둠 속에서도 길은 있다."

짧지만 강렬한 제목처럼,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켜야 한다'는
인간의 본능을 은유한다.

김성철
"우리는 다르지만, 같은 물 위를 걷는다."

나와 타인의 사이는 바다만큼 넓어
서로를 이해하기에 너무도 멀다.
하지만 서로 만질 수 있는 물은 같다.
무언가 좋아하기에 여유가 필요한 세상이라면,
서로가 닿아 있는 아름다운 바다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다.

박승
"삶의 무게를 끌어안고 가는 용기"

검은 비닐봉투, 그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삶을 살며 각자의 '검은비닐봉투'를 채우며 산다.
그것은 잊고 싶은 기억, 부정적인 감정들.
삶의 무게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기에,
연약해지며 강해진다.

위효선
"마음에도 도로가 있다면,
나는 그 길을 달리고 싶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친해지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도로와 도로들이 이어져 차들이 달리듯,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처럼 전해지길 바란다.

#2 함께 나눈 생각들

무언가를 "든다"는 건, 책임일까? 혹은 자유일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거리'는 꼭 좁혀야만 하는 걸까?
내가 가진 '검은비닐봉투'는 무엇이며, 그 무게를 덜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연결은 이해일까, 존중일까?